□성명서□

기획 이창범, 감독 김현수, 조감독 김인중, 주연 최희종
- 대한민국 국회 '패싱' 낙농몰살시나리오, 참혹하다! -

'참혹하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김현수 장관의 지시에 의해 낙농진흥회장은 오는 12.2일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소집한 낙농진흥회이사회에서 낙농진흥회 공기관화(정관개정)를 통해 낙농가들의 팔과 다리를 묶고, 연동제 폐지 및 쿼터무력화를 위한 안건상정을 11.24일 야밤(21시 48분)에 낙농가대표·단체들에게 기습적으로 알렸다.

낙농진흥회 안건자료에 따르면, 제3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11.16)에서 농식품부가 제시한 정관개정(공기관화)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현행 연동제 규정을 폐지하고 우유생산비, 유제품생산원가, 원유수급상황,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개편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기준원유량(쿼터)의 정의를 정상원유대를 지급하는 물량에서 진흥회장이 소속 낙농가에게 배정한 납유 기준량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즉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농식품부 입김에 따라 움직이도록 개편하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정부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연동제 폐지 및 쿼터무력화의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다. 전국쿼터법제화(한국형MMB설치), 사료가격 안정장치를 비롯한 국제규범·사례에 입각하여 생산자가 제시한 대안들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

이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패싱'하는 모몰염치한 행위다. 지난 10.20일 국회 농해수위 농식품부 국감에서 농해수위원장이 우려사항을 지적하면서 "정부안 최종 결정전에 위원회에 보고를 꼭 할 것"을 장관에게 여러 차례 요구하였고, 장관도 이를 수용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인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장관 독단으로 정부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속셈이다. 김현수 장관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거수기'로, 민간기구인 낙농진흥회를 '아바타'로, 국회를 '허수아비'로 활용하여 무소불위의 국가권력 행사를 통해 낙농몰살을 획책하고 있다. 지금까지 문재인대통령의 비호아래 농판·축산판에서 보여준 갑질·보복행정가 다운 면모다.

농식품부 관료출신 유가공협회장과 당국자들이 결탁한 낙농몰살시나리오는 낙농진흥회장이 주연이 되어 이제 현실화에 직면해 있다. 지난 8월 농식품부는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겨우 3차례 회의를 통해 언론책동을 통한 여론조작, 밀실 연구용역을 통해 정부정책의 정당성을 포장해왔다. 마치 국가주의에 사로잡혀 정부가 절대적인 선(善)인양 선량한 생산주체인 낙농가들을 이기주의집단으로 매도하고 법률(낙농진흥법, 민법, 형법 등)을 무시한 채, 농식품부는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착각 속에 빠져있는 것이다. 전국 낙농가의 동의를 얻지 못한 낙농정책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

우리 낙농가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위원들에게 호소한다! 낙농가 소득안정 및 자급률 향상이라는 거짓 간판아래 낙농가 쿼터감축, 원유가격 인하를 통해 낙농몰살을 책동하는 김현수 장관의 독단행정, 비민주적 행정을 중단시켜 줄 것을 호소한다. 국가의 폭거 앞에 선량한 국민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항권 밖에 없다. 낙농몰살시나리오가 상영관(낙농진흥회)에서 방영되는 순간, 전쟁이다! 우리는 낙농오적(酪農五賊)을 공개하고 낙농역사의 심판대에 반드시 올릴 것이다!

2021. 11. 26(금)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전화 : 02-588-7055 / 팩스 : 02-584-5144
홈페이지 : www.naknong.or.kr